



설날 가정예배 모범

예배로의 부름 ----- 인 도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 62:1-2)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384장 (통 434) ----- 다 같 이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X2)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X2)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X2)

성경봉독 ----- 히브리서 2:1~4 ----- 인 도 자

-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 2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 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 씬 -----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 ----- 인 도 자

오늘날 소통이 부족하고, 소통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계층간에, 리더와 구성원 간에, 공동체와 각 개인 간에 소통이 너무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고 일이 진행되지 않고 서로 간에 불신과 미움과 오해만 증폭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가장 큰 소통의 문제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가 소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겨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비극적인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회복이야 말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기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들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낚새로, 만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보고 맛보고, 또 하나님 만져보고 안겨보고 하면 더욱 은혜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 보다 듣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예 하나님께서는 들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들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들음은 지겹고 따분하고 주목할 것 없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듣는 소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들은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3절은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경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펼쳐 보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건성 건성 보는 것조차 성경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가까이 하는 유대인 성도를 향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한다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힘들고 바쁘다는 것은 잘 시간도 없이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서 결코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시되 깊이 묵상하기까지 보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증인된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들은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확증된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이 사람들을 통하여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들은 자들의 영광입니다. 듣는 자는 듣고 그것을 혼자 마음에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확증 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바르게 잘 듣고 증인이 되어서 그 들은 바를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시고 싶은 소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 증언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여 은혜와 복을 잘 누리는 우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찬 송 ----- 380장 (통 424장) ----- 다 같이

1.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2. 괴론 세상 지날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3. 세상 살아 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가겠네
(후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